

# 정호승



그의 시가 '비극'이라는 정류장에 머문 까닭

## 시집 《이 짧은 시간 동안》과 산문집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낸 시인 정호승

돌아온 시인의 손에는 여덟 번째 시집이 들려 있었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1999), 창비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출판사 경영을 맡기도 했다. 그런 그에게 시간은 더디지 않았나 보다. 제목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라니, 그를 기다린 시간이 무색해진다. 오랫동안 작성해 온 술한 메모들로부터 시를 이끌어내는 일은 한 꺼번에 이루어졌다. 시를 품은 정호승(54) 시인의 산란기가 조용했던 이유다.

“그동안 시를 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시를 쓰기 위한 준비는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온전한 시로 창작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의 '시 쓰기'는 특별하다. 몇 년 동안 기록했던 메모를 파일로 정리하고 출력해 100쪽에 이르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자신이 시만 써도 괜찮을 '어느 좋은 날' 부터 몇 개월 간 '작업'에 들어간다. 긴장을 놓칠

수 없는 고된 기간은 주로 6개월 정도다. 메모의 끝방울을 모두 담을 때까지 시를 쓴다.

“그러한 습관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집중력이 있어서 효과적이지만 문예지에 작품을 간간히 발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침묵했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제 습관이 그런 것어요. 시를 쓰는데 있어 준비작업이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썼다고 했지만 시가 쉽다고 해서 쓰여지는 것마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시를 거울로 삼아 자신을 비추고 반성하는 일

은 창작의 초석이다. 그래서 메모를 곁에 두고 시화화하는 과정은 언제나 고민이다. 시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닐진대, 이전 시집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쓸쓸한 분위기가 풍긴다. 버려지고, 늙고, 죽은 것들은 이번 시집의 단골 소재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비극은 우리네 삶의 모습,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 그 자체의 비극이라 그 자체가 위로가 된다. 살기도 힘든 시기에 시 감상마저 어려워져야 되겠느냐고 독자들의 이해를 고려해 쓰다보니 시는 자연히 길어졌다.

“시는 가슴으로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생각이었어요. 가슴에는 그림도, 시도 무엇든 담을 수 있지만 정작 아무도 볼 수 없고, 보여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메모도 메모일 뿐, 시의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휴지조각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활자화되어 읽힐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시를 써서 스스로 위안을 얻듯, 독자들도 시를 통해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개개인의 삶을 보고 '시'라는 그릇에 담는 일은 30년 전 등단 이후 그에게 주어진 의무와도 같은 것이었다. 그는 손이 닿는 여기저기에서 시를 찾아낸다.

“나이를 먹을수록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번은 발인이 끝난 장례식장에 다시 갈 기회가 있었어요. 멀쩡했던 화환들은 쓰레기가 되서 무참히 버려지고 꽃들은 여기저기 널려져서 비참하더라구요. 다음 장례를 위해 분주히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 꽃들과 같이 결국 버려지는 존재가 아닌가, 미화원은 의무(?)가 끝나고 버려진 꽃들을 아침마다 주워 먹고 죽은 인간을 꽃으로 피어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쓸쓸한 장례식장의 풍경과 꽃을 먹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꽃으로 피워낸다는 생각의 공통항이 <장례식장 미화원 손씨 아주머니의 아침>이다.

“사람이 죽고 나면 관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로 뒹뒹이를 평가받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소리가 청아하고 맑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받고 탁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느 날은 입관하는 장면을 보면서 나를 입관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죠.”

그는 '어둠속에서 내 관을 툭툭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며 시에서 고백하고 있다. 그의 문장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힘이 있다.

장르를 마다하지 않아 시나 소설로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은 동화나 동시로 창작한다. 내면의 어린이를 잃어버린 어른들을 위한 동화다. 에세이 성격을 띠는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는 이번 시집에 뒤이어 출간됐다. 일상의 그늘을 향한 빛과 같은 이야기 모음이다. 남편과 사별한 부인의 마음과 실직한 가정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러나 삶과 사랑을 지탱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전하는 시인의 위로는 눈물겹다.

“너무 완벽하면 무너지는군, 좀 허술한 구석이 있어야 해.” 김씨는 발두렁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중얼거렸다. 유채꽃이 그 말을 듣고 바람에 흔들거렸다. 유채꽃은 바람에 온몸을 내맡겨야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제주도 돌담)중에서

'당신을 위해 가장 낮은 바다가 되고 싶다'는 시인의 바람은 온기 가득한 문체 속에 전해져 무언의 희망을 건넨다.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에 언어의 옷을 입히고 창

작하는 행위가 곧 시인의 의무라는 말도 덧붙였다.

“예전에는 시라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전 그저 힘이 되지요.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싫어하는 일을 택하지 않잖아요. 시를 쓰는 일이 왜 좋냐고 물으면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때, 시는 해소가 되는 동시에 위안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는 시를 쓴다. 일은 어느 시점에서 그만두게 마련이지만 버리지 않고, 또 버릴 수 없는 일, 그에게 시 쓰기란 그런 것이다. 속도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사는 현대인들 속에서 가끔 자신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줄 아는 시인. 그의 모습은 아름답고 진지하다.

밥은 콩보리밥이었다 / 나는 밥에 탄가루가 떨어지는 것 같아 먹기가 싫은데도 / 자꾸 더 먹으라고 권하는 바람에 몇 젓가락 떠먹다가 / 혹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 그러자 그가 수줍은 듯 웃음을 띠면서 말했다 / 그야 물론 땅 위의 직업을 갖는 거지예 <<이 짧은 시간 동안>> (막장에서)중에서

그에게 소원을 물었다. “그야 물론 시 쓰기를 계속하는 것이지요. 시인의 본령 아니겠어요.” 광부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그가 말했다. ☞

취재 홍이현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이 짧은 시간 동안> 정호승 지음 | 창비 | 156쪽 | 값 6,000원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정호승 지음 | 해냄 | 252쪽 | 값 9,500원